행복한 금요 편지

삶의 현장에서...
정년을 앞둔 너에게!

김우갑[1)]
세인트관리 주식회사 대표

얼마나 오랜만인가... 선배님의 청탁을 받고 펜을 잡는다. 편지를 쓴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 연필을 잡은 모습에 아련한 연민이 느껴진다. 쓰다가 되뇐다. "그대 먼길 오시느라 힘들고 고생하셨네... 자문자답을 한다. 성공, 성공, 성공... 지금 생각하니 삶의 유일한 모토가 성공,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

얼마나 달렸을까, 한눈 팔 겨를도 없었다. 정신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하차 할 시간 종착역이라는 정년에 도착했다. 뒤를 돌아보니 멍하고, 허무하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었는지 후회스럽다. 그 시절, 삶이 팍팍한 시절에 빨리 빨리라는 속도가 몸에 배었다. 즉 빠름이 승리요, 느림은 패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땐 너무나 당연시되고 분위기가 그랬었다. 누군가 말했지요, 기차 속에서는 속도를 잘 느끼지 못한다고...

재직 중에 사내 노조활동을 위해 혼신의 힘을 모아 열심히 했다. 그 바쁜 와중에 학위도 했다. 이제 정년 앞에서 삶의 화폭과 여백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전체적인 윤곽도 선명히 보인다. 인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비슷할 거야 하는 측은한 맘이 든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김우갑 경영학 박사는 현재 세인트관리 주식회사 대표, 한일합섬 노조위원장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지구의 생태계는 만물이 생성되고 소멸된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우리도 그 속에 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급행열차... 속도에만 매달려 왔다. 그렇다면 느림의 미학, 비움의 풍요는 실행할 수 없는 마음속의 바램인가? 삶과 죽음! 부친이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다. 너무나 빠르다. 이미 내 나이가 정년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말이다. 인정하기 싫다. 나름대로 경쟁에 노출된 삶 속에서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인지? 행동하고 달리고 그리고 생각했다.

전쟁과 평화, 사랑과 미움, 우정과 배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성공만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해왔지 않았는지 생각한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광고 카피가 얼핏 스친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합리화시켜 탐닉하고 살아간다. "길이 끝나는 곳에 새로운 길이 시작 된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또 다른 길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 보려고 삶에 열심이다. 혼자가면 빨리 갈수 있겠지만, 함께 가면 멀리가지 않을까요?

이제 가을 하늘을 쳐다보고 강바람을 쐬면서 다음 열차를 또 기다리려 프랫폼을 찾아야겠다. 가을 하늘이 너무 곱습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발행일: 2016년 9월 30일 (2016-24)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행복포럼 / www.hansun.org